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1>

구성 : 김흥인



두 귀신의 다툼

<백유경(百喻經)>



옛날 비사사라는 두 귀신이 상자 하나, 지팡이 한 개, 신발 한 켤레를 놓고 다투었다. 어떤 이가 이유를 묻자 "상자는 생필품을 만들고, 이 지팡이를 잡으면 힘이 세지고, 이 신을 신으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고루 나누겠다고 귀신들에게 떨어지라 하고는 상자·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날아가 버렸다. 여기서 귀신은 온갖 마(魔)와 외도를 비유한 것이고, 상자는 보시로서 생활 도구가 그 안에서 나오며, 지팡이는 선정으로 마군·번뇌를 항복받고, 신은 계율로 반드시 인간·천상에 오르는 것이다. 마·외도가 다투는 것은 그들이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선과를 구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데 비유한 것이다. 만일 선정·보시·계율·선정을 닦으면, 곧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육조 혜능 선사 남고혜능(南派慧能)



고려 판화박물관 소장 <선비(南派) 남고혜능(南派慧能) 전, 불암사(佛岩寺) 1673년 간행, 판각(半切)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혜능 선사가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의법을 전수받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혜능(慧能, 638-713) 선사는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로, 육조대사(六祖大師)라고도 한다. 신수(神秀)와 더불어 흥인 문화의 2대 선사로 남종선(南宗禪)의 시조가 되었다. 속성은 노씨이고 본적은 범양으로 어렸을 때 부친을 따라 영남 신주로 유배됐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땀나무를 하며 모친을 봉양했다. 어느 날 <금강경>의 계송을 듣고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선종 5조 흥인 문화에 들어 받아들여 정는 행자가 됐으며, 흥인 대사의 인가를 받아 의법을 전수받고 영남으로 보내져, 소주(韶州) 조계(曹溪)의 보림사(寶林寺)·대법사(大梵寺)에 머물면서 법을 펼쳐 많은 신도들의 귀의를 얻었다. 제자로는 하택신회(荷澤神會)·남양혜중(南陽慧忠)·영가현각(永嘉玄覺)·청원행사(淸原行思)·남악회양(南岳懷讓) 등 40여 명이 있었다. 대법사에서 혜능의 설법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이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이란 이름으로 후세에 전해진다. 흥인 밑에서 법을 겨루던 신수는 주로 북방에서 법을 전하며 '점오(漸悟)를 주장하여, '남돈북점(南頓北漸)' '남능북수(南能北秀)'라는 말이 생겨났다. 본문을 살펴보면 흥인 대사로부터 의법을 전수받았던 내용이 실려 있다. "어느 날 흥인 선사가 그의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각각 한 수의 계송을 지어 나에게 보이거라.' 이에 신수가 한 수의 계송을 지었다. '몸은 보리수와 같고(身是菩提樹),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時時勤拂拭), 먼지가 일어나게 하지 마라(莫使惹塵埃).' 혜능이 이 계송을 보고 다시 계송을 지어 화답했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菩提本無樹), 명경도 역시 데가 아니다(明鏡亦非台).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데(本來無一物),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리오(何處惹塵埃).' 이 계송을 본 흥인 선사는 한밤중에 물레 혜능에게 법을 전했다.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조사들의 승가리와 보발을 모두 너에게 부촉하니 너는 이것을 잘 보전해 법이 단절되지 않게 하라라.' 이로써 인도로부터 들어온 불교가 혜능에 의해 유가, 도가 뿐만 아니라 여타 중국의 전통문화사상까지 흡수해 불교의 중국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아침

새떼가 우르르 내려앉았다
키가 작은 나무였다
열매를 쪼고 퐁을 누기도 했다
새떼가 몇 발짝 떨어진 나무에 옮겨가자
나무 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가
누군가 들고 가는 양동이의 물처럼

한 번 또 한 번 출렁했다
서 있던 나도 네 모서리가 한 번 출렁했다
출렁출렁 하는 한 양동이의 물
아직은 이 좋은 징조를 가지고 있다
-문태준<유심>2009년 3·4월호에서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4월 방생 안내 (간월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